
집중어학교육 장기과정을 통한
영어실력 다지기

| | |
|-----|---------|
| 학과 | 간호학과 |
| 학년 | 1학년 |
| 학번 | ○○○○○○○ |
| 이름 | 이 ○○ |
| 연락처 | - |

영어를 마지막으로 배운 것은 약 6년 전으로, 그 이후에 한 번도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다. 가장 기초적인 am/are/is 조차 헷갈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학원과 과외를 알아보던 중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집중어학교육 장기과정’을 보게 되었고, 이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 과정에서 300점을 올릴 수 있었던 나의 경험에 대해 작성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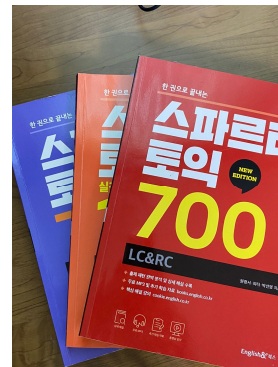
영어를 배우기 전에 가장 걱정했던 요소는 돈이었다. 짧은 기간이라도 학원 수업이나 과외를 받기 위해선 최소 100만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학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는 돈이 전혀 들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 수업료, 실강, 인강, 책을 포함해서 기숙사까지 무료로 제공받았다.



행복기숙사



방학 중 제공받은 토익 책



제공받은 실물 책

이 프로그램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했고 반을 나누기 위해 온라인 모의 토익을 보게 되었다. 처음 본 모의 토익에서 500점대를 받아서 토익 중급반에 배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본인의 점수가 너무 낮거나 높아서 반을 옮긴 학생들도 많았다. 점수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맞는 수업 방식·강사님에 따라 자유롭게 반을 변경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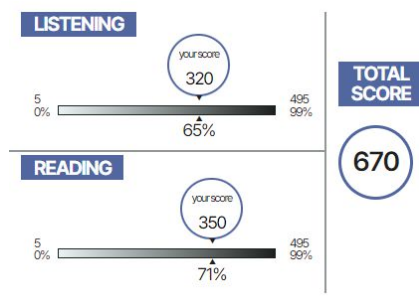
3주라는 기간 동안 LC와 RC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즉석에서 질문을 받아 모르는 문제와 틀린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틀린 문제의 해설을 들으며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 더 빨리 풀기 위한 팁들도 들을 수 있었다.

강사님이 모의 토익 점수를 통해서 개인의 성적에 맞춰 상담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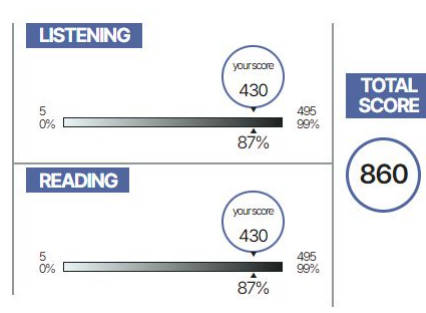
하였는데 이를 통해 나의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나의 약점은 점수에 비해 낮은 LC점수와 part5의 점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3주 동안은 LC와 문법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LC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 모의토익을 풀었다. 틀린 문제는 받아쓰기를 통해 어떻게 읽는지와 나라별 발음을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등·하룻길에는 노래 대신 LC를 들으며 통학했다.

part5는 문법과 단어가 약점이었다. 3주 동안 배운 문법은 자연스럽게 점수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단어는 그렇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향상시킬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들었다. 3주 동안 매일 단어시험을 통해 다양한 단어를 접하여 정리하고, 책에 나온 단어들과 강사님이 배포해주신 고득점 단어들을 정리해서 3주 동안 1000개가 넘는 단어를 외울 수 있었다. 이는 모의토익뿐만 아니라 실제 토익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첫 주의 모의토익에서는 100점이 올랐고, 마지막 날에 보았던 모의토익에서는 300점이 올랐다. LC에서만 비교하면 100점이 올랐고, RC에서 80점이 상승하였다.



첫 오프라인 모의토익 점수



세 번째 오프라인 모의토익 점수

또한 오답노트와 패러프레이징(paraphrasing) 노트 작성법도 배울 수 있었다. RC는 오답노트를 따로 작성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험지에 정답에 대한 근거를 찾는 연습이 하였고, part5와 part6에서는 문법적인 내용을 정리하였다. LC는 part2의 점수가 낮기 때문에 질문과 답을 적어 매일 읽어보는 연습을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온 패러프레이징 단어와 어구를 찾아 노트를 작성하였다. 이 노트들은 실제 토익장에 갔을 때 간단하게 공부하기 좋았고, 정리한 내용들이 시험에도 많이 나와서 점수를 향상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3. 31.

3. Why don't we ride together to the conference room?

(C) Sure, I'd be happy to pick you up.

4. Do you mean me to bring anything from the Indian restaurant?

(A) I just ate - but thanks.

5. Would you mind making room for me at the seminar?

(D) I wasn't planning on going. **가장 좋은 대답은 D이다.**

3. 32. **Part 7**

1. We're running out of pens and pencils.

(A) I will order some more.

2. The security system needs to be repaired.

(C) Yes, it's urgent.

4. Excuse me, I couldn't find the boarding card on my return.

(B) It should be at the bureau.

5. The monthly sales report is due this morning.

(E) Can we finish it in time?

7. 71.

4. How many people have signed up for the online seminar?

(B) About a dozen.

3. 72. **Part 8**

8. Did you get an invitation to the meeting?

(C) I've been accepted with nothing throughout the day.

9. When is the next general meeting due for the new administrative department?

(D) The decision has either.

meeting = O gathering 등. O conference, but
 progress = 진행, 앞으로 진행
 wonder needs = 우려, money 필요
 one at a time = 하나씩, one by one
 happen = 일어, up to normal = 정상
 work after hours = for in home hours 시간
 have = have, receive = 받음
 have = have, receive, need
 make some time sth = go on vacation, 시간 여유를 내기, 휴식하기, 놀기 등
 give out handout = provide information, 분배, (정보)를 나누기, 제공
 finish = go over, 끝
 error = wrong figure = inaccurate information, 오, 잘못됨, 오, 정확하지 않은 정보
 make = update = change = modify 수정
 sorry = faultless, questionnaire, 설문지
 complete = full, 완전
 due by = 해야 할 때
 get together a table = finish a document = write a document, 모든 사람이 = 서로를 만날
 use to do sth = to do sth, use to do sth = to do sth, use to do sth = to do sth
 regarding = concerning = as to, something to, -에 관하여
 a wide range of = a wide selection of, 다양
 notice = first response, 응답
 confirmed = confirmed, 이미 결정된 것
 professor = teacher = home owner, 집주인
 look = confirm, 이미 결정된 것
 remote = remoteness = dependent, 의존적
 presentation = subsequent, 후속
 capacity = 능력
 traffic jam = bumper to bumper, be stuck, backed up, held up, caught up, (정체)됨
 let = carrying, 싣기
 success = cloudy = foggy, 흐림

오답노트

패러프레이징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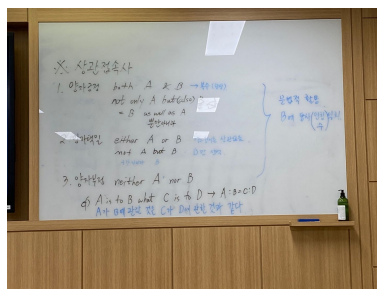
첫 시험에서는 모든 부분을 한글로 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을 도출하였다.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모의토익을 보는 과정에서 part7의 마지막 부분을 아예 풀지 못하는 등 점수 향상에 방해가 되었다. 점수향상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나며 두 번째 모의토익에서는 점수가 떨어졌다. 공부를 하고 있음에도 점수가 떨어져 낙심한 나에게 강사님은 위로를 해주셨고, 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같이 도움을 주셨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시간 제한이었다. 나는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답을 찾는 것에 집중하는 버릇이 시험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었다. 강사님은 한 문제 당 30초-1분의 제한을 두고 학생들을 압박하였다. 처음에는 풀지도 못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이 화가 났다. 하지만 3주 동안 이 방법을 반복하자 빨리 문제를 풀기 위해 중요한 내용을 간추리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중요한 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어구를 정리해서 외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찾았다. 또한 토익에서 자주 나오는 동사-형용사, 동사-부사의 관계를 파악하여 해석하지 않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통해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

3주간의 대면 강의가 끝나고 방학 동안에는 인터넷 강의를 제공받았다. 다양한 커리큘럼을 선택할 수 있었고, 자신이 부족한 부분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나는 LC나 RC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보다는 토익 시험 자체를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에 1000제와 실전 모의고사를 선택하였다. 방학 기간의 인터넷 강의를 끝나고 학기가 시작되면 또 다시 대

면 강의가 시작된다. 새로운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다른 강의에서 배우지 못했던 방법을 배우기도 하였고, 부분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훑기 때문에 토익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다.

| | | | | | |
|---|-------|-------------------------|---------|-------|-----|
|  | 주요 품종 | 날로 | 다량 판매 | 판매처 | 판매량 |
| | 양파 | 350 | ▶ 양파종이산 | 30% | |
| | 양파구이 | 2024.07.23 ~ 2024.08.16 | ▶ 자두종 | 100 % | |
| | | | | | |



방학 중 토익 인강

이 과정에서 학교에서 제공받은 토익 쿠폰으로 실제 토익장에 가게 되었다. 첫 토익에서 긴장을 해서 손이 떨렸었다. 대면과 비대면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여 침착하게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고, 첫 모의 토익인 500점대에 비하면 230점이 오른 735점을 받을 수 있었다. 아직 만족스러운 점수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집중어학교육 장기과정을 통하여 토익 공부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점수를 향상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아직 3년이 남았기 때문에 만점을 목표로 도전하고 싶다.

학기 중 대면 강의



첫 토익 점수

6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장기과정에 때로는 벅차고 지치기도 하였지만, 질높은 교재와 강의가 만족스러웠다. 기초 영어인 학생부터 고득점 학생들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영어 점수가 낮아 걱정하는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싶은 과정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어학연수 기회도 제공하기 때문에 관심있는 학생들은 이 과정에 참여하면 영어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